



전통영극

우리들의 잃어버린 신명

허은 지음

교보문고

신화와 제의 서남국 탈춤 속에 나타난 죽음

전통극 속의 제의의 모습을 통해, 수영의 탈춤을 연극과 놀이 전통

우리 얼굴 탈춤의 춤 전통극과 사자 꼭두각시놀음 발달과 그

협동사 원각사 임성구와 혁신단 키노드라마의 전통극

우리 무대, 서양 무대 축제문화의 회복 우리 연극의

신화와 제의 서남국 탈춤 속에 나타난 죽음

전통극 속의 제의의 모습을 통해, 수영의 탈춤을 연극과 놀이

춤의 춤 전통극과 사자 꼭두각시놀음 발달과 그

협동사 원각사 임성구와 혁신단 키노드라마의 전통극

문제 우리 무대, 서양 무대 축제문화의 회복 우리 연극의

제의 서남국 탈춤 속에 나타난 죽음

전통극 속의 제의의 모습을 통해, 수영의 탈춤을 연극과 놀이

우리 얼굴 탈춤의 춤 전통극과 사자 꼭두각시놀음 발달과 그

연극과 중국의 전통극과 일본의 전통극 협동사 원각사

신파극 회극과 비극 공연과 회극의 문제 우리 무대, 서양 무대 축제

문화의 회복 우리 연극의 현실 새롭게 시작되는 기억들

나라의 죽음 신화와 제의의 모습을 통해, 수영의 탈춤을 연극과 놀이

전통 연극 신화와 제의의 모습, 우리 얼굴 탈춤의 춤 전통극과 사자 꼭두각시놀음

발달과 그 그림자 놀이 우리의 전통연극과 중국의 전통연극 협동사 원각사

임성구와 혁신단 키노드라마와 신파극 재현되는 신파극 회극과 비극

공연과 회극의 문제 우리 무대, 서양 무대 축제문화의 회복 우리 연극

의 현실 새롭게 시작되는 기억들

신화와 제의 서남국 탈춤 속에 나타난 죽음 전통극 속의 제의

의 모습을 통해, 수영의 탈춤을 연극과 놀이 전통연극 신화 우

리 탈, 우리 얼굴 탈춤의 춤 전통극과 사자 꼭두각시놀음 발

달과 그림자 놀이 우리의 전통연극과 중국의 전통연극

협동사 원각사 임성구와 혁신단 키노드라마와 신파극 재현되는

신파극 회극과 비극 공연과 회극의 문제 우리 무대, 서양 무대 축제

문화의 회복 우리 연극의 현실 새롭게 시작되는 기억들



책머리에

우리 구, 우리 면

연극은 어느 곳에나 있다. 동시에 각기 자신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극의 보편성과 특수성 속에서 우리 연극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일은 많은 논란과 자기반성을 야기한다.

우리 연극을 평가하고 나아갈 바를 정할 때, 지금까지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닌 서구의 문화기치가 아니었던가? 이 물음은 적어도 우리 시대에 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연극에 대한 이해나 체험이 현실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연극이 현실 속에서 생활의 일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동시대 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연극이 담고 있는 내용과 형식이 우리의 정서와 그 궤적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전통극 을 재발견하고 우리 시대에서의 재현을 통해 그것과 부단히 접촉해 보는 것이다. 조각난 연극의 원형들을 재조립하고 작은 파편들 속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미소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글은 '우리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다. 세계연극사 속에서 우리 연극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작업들이 현장과 학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도 많이 망설여진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학문적 연구성과를 통해서 얻어질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보통의 관객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박물관적인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연극이 되기 위해서는, 연극은 일반관객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 통로를 통해서 실천적 '우리 연극'이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전통연극은 일반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쓰여진 글들이 너무 '연극'라는 틀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동기는 바로 그러한 나름대로의 반성에서부터였다. 공부가 아직도 미진하고 어설픈 채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단계에서, 쉽게 쓴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앞섰다.

애초에 필자는 월간지 '열과 문화'에 우리 전통연극에 대해서 1~2회 정도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재회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책으로 엮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용의 짜임새란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차후 계

속될 전통문화에 대한 정리를 통해 해소하기로 하자.

이 책은 전통연극의 사회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출판한다. 전통연극관련 저술에서 제외와 연극에 관한 부분은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다루어졌지만, 신화의 재현으로서의 제외와 이를 다시 연극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러한 발상은 그리스연극이 신화적 세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부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어 우리 전통연극을 두루 살펴보고 신극과 신파극 그리고 거대한 연극으로서의 축계에 관해 언급하였다. 어떤 경우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과 수필과 같은 너스레도 있다.

연극은 글로 설명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닌, '보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 작은 글쓰기는 '안전한 우리 연극 보기'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으로 이 글들이 모여질 수 있는 기회를 준 월간지 '열과 문화'와 연극관련 서적의 출판이 기저는 비경제성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준 교보문고 그리고 더위 속에서도 연구실을 지키며 많은 도움을 준 허한범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98. 海雲樓에서

許 銀

차례

책머리에 우리극, 우리 멋 • 5

1장. 신화, 제의, 놀이 그리고 연극

1. 신화와 제의 • 11
2. 서낭굿 • 18
3. 탈춤 속에 나타난 죽음 • 25
4. 전통극 속의 제의의 모습 • 32
5. 동래, 수영의 들놀이 • 45
6. 연극과 놀이 • 52

2장. 우리 연극을 찾아서

1. 전통연극 산책 • 75
2. 우리 탈, 우리 얼굴 • 85
3. 탈춤의 춤 • 103
4. 전통극과 사자 • 110
5. 꼭두각시놀이 • 122
6. 발탈과 그림자놀이 • 130
7. 우리의 전통연극과 중국의 전통연극 • 139

3장. 신극사 이야기

1. 험물사 • 153
2. 원각사 • 159
3. 임성구와 혁신단 • 166
4. 키노드라마와 신파극 • 174
5. 재현되는 신파극 • 180

4장. 우리 연극, 남의 연극

1. 회극과 비극 • 189
2. 공연과 회극의 문제 • 195
3. 우리 무대, 서양 무대 • 201
4. 축제문화의 회복 • 207
5. 우리 연극의 현실 • 218
6. 새롭게 시작되는 기억들 • 236

- 김문환 『연극평론의 기초』, 느티나무, 1991
- 에르빈 피스카토르 저, 양혜숙 역 『연극과 사회』, 현암사, 1984
- 헤리슨 저, 오병남 외 역 『고대에술과 제의』, 예진사, 1975
- 한국연극, 1990년 7월호~1994년 8월호까지, 한국연극협회
- 한국일보 및 조선일보, 1990년 1월부터 1995.3월까지
- 조셉 캠벨 외 옮긴 옮긴, 『신화의 힘』, 고려원, 1995
- 官尾慈浪 『フジヲ演劇人類學の世界』, 三一書房, 1994
- 大林太狼 『神話學入門』, 中央新書, 1966
- 姫野 『藝能の人類學』, 春秋社, 1989
- 山内登美雄 『演劇の文明史』, NHK, 昭和59年
- Mackerras Colin 『Chinese Theatre』, Univ. of Hawaii, 1983
- Schechner Richard 『Between theatre anthropology』,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85
- Tumbul Colin M. 『The Human Cycle』, Simon and Schuster, 1983
- Turner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 paj, 1982
- 『The Ritual process』, Cornell Univ. press, 1969

우리들의 잃어버린 신명 전통극

발행일 / 1999년 1월 1일
 저자 / 허은
 발행인 / 박환인
 발행처 / (주)교보문고
 등록 / 제 1-40호(1981. 11. 1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전화 / 3973-500(대) / 735-6151(도서문의)
 (도서주문) 3973-682~9(FAX : 736-2361)
 (출판과) 3973-692~5(FAX : 397-3696)
 ISBN 89-7085-255-8 03680
 저자외의 합의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허은 1999

이 책의 내용, 구성 및 디자인의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